

1985년 감사보고서

1985년도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회원 여러분에게 보고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1985년 11월 2일~3일
2. 장 소 : 협회사무국
3. 참석자 : 김용천 회장, 재무이사, 사무국직원
4. 감사자 : 이소영·민경옥
5. 감사내용 : 사무감사, 회계감사, 사업감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사무감사

(1)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철

각 지부에서 올라온 보수교육면제신청서가 잘 보관되어 있었으나 퇴직시 퇴직증명서 등의 첨부를 기하여 좀 더 근거자료를 보강하도록 함.

(2) 총회 회의록철, 국내문서발송대장, 국내문서발송철, 국내문서접수대장, 국내문서접수철
총회회의록철이나 각종 공문서 수발 대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음.

(3) 85년도 보수교육계획서철 및 결과보고서철
지부보수교육계획서철이나 결과보고서철 등은 잘 되어 있었으나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중앙회보수교육계획서철과 결과보고서철이 미비되어 있어 보완하도록 함.

(4) 회비납부대장 및 지출결의서
일별, 월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담당자(사무국장 및 재무이사)의 날인도 잘 되어 있었음.

(5) 이사회기록
잘 정리되어 있었음.

(6) 업무일지
그동안 협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업무일지를 새로 만들어 매일 업무일지를 쓰고 있었음.

(7) A.C.P.T. 와 W.C.P.T. 공문서철
A.C.P.T. 와 W.C.P.T. 에 관계되는 공문서 수발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음.

(8) 기타
1. 부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홍보와 선거 절차 현재 결석으로 되어 있는 부회장 보궐에 관하여 정관 제 12조와 운영규정 제 21조를 들어 위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이사회회의 의결(이사회회의록에서 확인하였음)에 의해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협회

장이 지명한 사람을 총회에서 인준받는 형식으로 보선 하겠다는 협회장의 답변이 있었음.

2. 회장 입후보시의 공약 추진현황

1) 86, 88을 대비한 스포츠 물리치료분야 확대 A.T 과정에 관한 초기 목표(수료후 각 팀업에 의무적으로 취업을 보장) 설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A.T 과정의 주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내리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또 본 감사들이 확인하여본 결과 회장이 수차에 걸쳐 태능 선수촌을 방문하였고 체육부나 기타 유관기관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었음.

2) 물리치료사의 법적지위 향상

의료기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의료기사법 초안을 작성하여 보사부에 건의하였으며 물리치료실의 개설에 관하여서도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2) 회계감사

(1) 현금출납장 및 저금통장 관계

현금출납장은 매우 잘 정리되어 있었으나 저금통장이 협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였든바 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차월에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 있어서 대의원 총회에서 상의하기로 함.

(2) 사무국 매매관계 서류

사무국 매매에 관한 관계서류에는 하등⁶ 하자가 없었으나 등기상의 명의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한 바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이 직접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추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합의함.

(3) 세입, 세출결산

세입, 세출 결산안 참조.

(4) 1985년도 예산의 초과지출 항목

예산과 지출 사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항목은 없었음.

3) 사업감사

협회의 성격(사단법인)상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재무이사를 중심으로 관철각도기나 서적의 출판등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음.

6. 감사에 대한 종합평가

누구가 협회의 감사를 하라고 해서 감사의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고 본 협회의 감사가 되고자 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 중임을 맡고 정관 제 22조의 임무를 수행코자 본 협회의 감사를 1985년 11월 2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고자 하니 무엇보다 어떻게 할 것인지 조차 당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공과 사를 구분하고 회원의 입장에서 서서 일하고 사가 개입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할 것. 둘째 본 협회에서 해결 목적을 둘 것, 해결치 못한 것은 대의원 총회에서 넘겨서 할 것.

이 두가지를 염두에 두고 감사 결과 따질 것은 따지고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사항은 위임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소신껏 하였으며 사심이 개입치 않았습니다.

소감은, 창립 20주년 학술대회 준비, 감사 준비에 걸쳐 밤 늦도록 고생한 것이 보였고 성의껏 준비한 사실이 들어나 있었습니다. 맡은바 책임을 다할려는 것이 역력히 보였으며 가장 큰 느낌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지식은 행정적인 묘미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1985년 11월 6일 감사 이 소 영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감사로 선출하여 주신 대의원님들과 회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1. 수입, 지출의 선결제 후지불의 방식이 정착되었

는가?

2. 기획과 재무가 분리되었는가?

3. 협회 예산의 통장화가 이루어졌는가?

4. 협회장 출마시의 슬로건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5.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문서가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어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역력히 엿보였으며 이제 협회의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없었던 업무일지를 새로 만들어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은 매우 칭찬할만 하였으며 매년 지적되었던 일부 서류들도 금년에는 지적할만 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했던 것은 정관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이사회 의결에 의해 결정된 것(부회장 선출이나 회관전립기금관리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단의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질의와 토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은 몇가지 행정적인 미흡함이 있긴 하였지만 전문 행정요원이 아닌 사무국근무 회원들이 이만큼 협회의 살림을 잘 하여 주었다는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을 한다면 협회의 모든 업무가 비교적 잘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각종 문서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매우 우수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5년 11월 6일 감사 민경옥

첫 시

김 은 희

얇은 안개 흐려지면
일곱의 빛 안아보는 행복보다
어스름한 떠오름의
고통으로 서러워라
이슬에 젖어버린
숨죽인 낙엽이
못 물위에 헛돌며는
허허로운 외로움으로 서러워라
빈 나목사이로 고이 다가오는
붉으레한 붉은 하늘이
어둠먹고 혼자사는
고독으로 서러워라

학교건강관리소 부속병원

春 雪

설 암

神은
따사한 봄이 싫어
春雪을 내리는가보다
이거야 정말
술이나 마셔야지
외로움이 밀려오는 향수에 젖어.
下道엔 벚꽃이 피건만
神은
봄을 맞기도 전에
겨울준비를 하나보다.

